

# 홍콩 시위 촉발 '여자친구 살인범' 석방

대만서 범행 후 홍콩 도주  
'속지주의'로 살인죄 처벌 못 해  
자수 의사 밝혔지만  
홍콩·대만 신병 놓고 실랑이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 반대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살인범이 그의 신병처리를 둘러싼 홍콩과 대만 정부의 실랑이 탓에 결국 석방되고 말았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주한 찬통카이(陳同海·20)가 이날 오전 홍콩 픽업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찬통카이는 교도소 앞에 몰려든 많은 취재진 앞에서 허리를 숙이며 사죄의 뜻

을 나타낸 후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대만으로 가서 죄값을 치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 사회와 홍콩인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홍콩인들이 속죄할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찬통카이는 지난 6월 초부터 다섯달째 홍콩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송환법 반대 시위를 촉발한 장본인이다. 홍콩 정부가 지난 4월부터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해 2월 그가 대만에서 저지른 살인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찬통카이는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한 지하철거 부근에 유기한 후 홍콩으로 도망쳐왔다. 하지만 홍콩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영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찬통카이에게 적용된 것은 여자친구의 돈을 훔쳤다는 절도와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뿐이었고, 재판 결과 그에게는 29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홍콩 정부는 찬통카이를 대만으로 인도 하길 원했지만, 대만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를 실행할 수 없었다. 이에 홍콩 정부는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들였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범죄인 인도 법안이 홍콩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램 행정장관과 친중파 의원들은 법안 추진을 강행했고, 이는 송환법 반대 시위로 이어졌다. 지난 6월 초부터 다섯달 동안 이어진 송환법 반대 시위에 연인원 수백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시위대와 경찰의 격렬한 충돌은 이제 홍콩의 일상과도 같은 모습이 됐다. 29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찬통카이는 모범수로 형 감면을 받아 18개월만 복역한 후 이날 출소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심경 변화를 일으켜 홍콩 정부에 서한을 보내 살인죄에 대한 자수 후 대만에서 복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과 대만 정부는 찬통카이의 신병처리를 놓고 실랑이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루브르 다빈치 전에 나온 '살바토르 몬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展) 개장식에서 방문객들이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에 팔린 후 진위 논란을 빚은 다빈치 유화 '살바토르 몬디'의 사진을 찍고 있다. 루브르는 다빈치 사후 500주년을 기념해 사상 최대 규모로 다빈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 FT "中, 시위 장기화에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 교체 검토" "중앙정부에 미운털 박혀"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램 행정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를 승인할 경우 캐리 램 행정장관의 후임자가 내년 3월까지 임명될 예정이며, 후임자로는 노먼 탄(陳國強) 전 홍콩금융관리국(HKMA) 총재, 헨리 탕(唐英年) 전 정무사장(총리 격) 등이 거론된다. 지난 6월 초부터 시작된 '범죄인 인도법

안' (송환법) 반대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캐리 램 행정장관은 안팎의 퇴진 압력에 시달려 왔다. 홍콩의 범민주 진영은 캐리 램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시위 사태를 촉발했다며 그의 사퇴를 주장해 왔고, 친중파 진영도 그의 위기 대응 능력에 의구심을 나타내 왔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캐리 램 행정장관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그가 시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지만, 캐리 램 장관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캐리 램 장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가 중국 중앙정부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10월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사상 최대 열병식 등으로 중국의 초강대국 부상을 대대적으로 과시 하려고 했지만, 같은 날 홍콩 시위에 참여한 18세 고등학생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중상을 입으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바 있다.

이후 홍콩 시위 사태는 더욱 격해졌고, 11월 24일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파 진영이 참패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앞서 홍콩 빈과일보에 '베이징이 행정장관 플랜B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캐리 램 장관의 사퇴나 대규모 개각이 현실화할 수 있으며, 중국 정부는 적절한 시기를 찾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17년 7월 1일 취임한 캐리 램 행정장관의 임기는 5년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연합뉴스

## "中, 홍콩 강경진압 못한 이유 상당한 금융 손실 우려 때문"

중국이 홍콩 시위에 강경진압 카드를 꺼내지 않는 까닭은 중국 본토를 위한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기능이 독보적이라는 데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식시장, 은행대출, 채권발행, 직접투자 유치 등 홍콩이 중국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지속하면서 22일(현지시간) 이같이 분석했다. 우선 홍콩은 중국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핵심적인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레피타티브에 따르면 1997년부터 올해 9월 25일까지 중국의 기업공개(IPO) 규모는 역대가 4천450억 달러(약 522조2천520억 원)이고 역외가 4천19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홍콩 증시는 역외에서 3천350억 달러를 끌어올렸다. /연합뉴스



피난길 나선 쿠르드 가족 22일(현지시간) 터키 접경의 시리아 다르바시야에서 살림살이를 싣고 피난길에 오른 쿠르드족 가족. /연합뉴스

## 바이든도 워런도 불안한 美 민주당 트럼프 대항마 제3후보 찾기 골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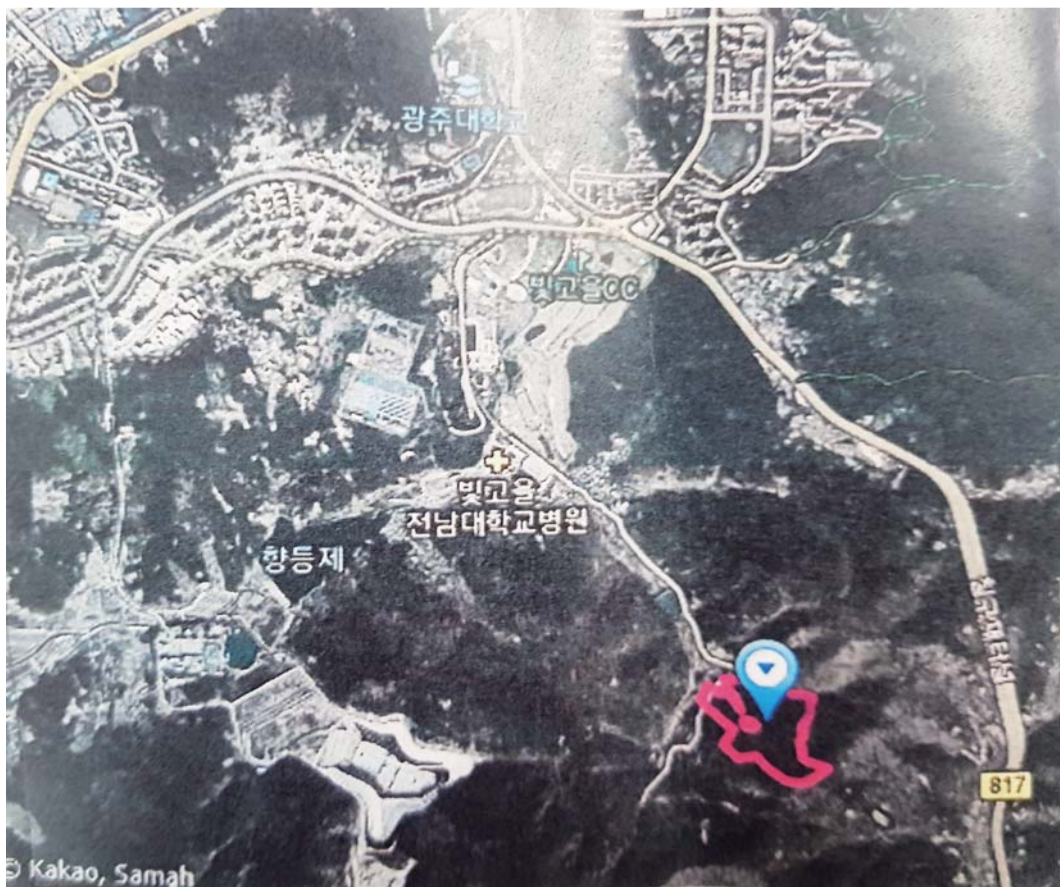
내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항마를 뽑기 위한 민주당 경선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당 내부에서 제3의 후보를 찾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민주당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어느 인사가 이번 경선에 빠져있으며, 끌어들이 만한 인사는 누구인지'가 화두에 오른다. 이는 지난주 뉴욕 맨해튼의 휘트비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기부자 만찬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 내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대선 때마다 후보로 거론되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을 거론했다. 심지어 한 참석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여사를 언급했다고 다른 참석자들은 전했다. 최근 민주당의 행사를 두차례 주최한 리아 도허티는 "지난번 토론회 이후 5-6명이 다른 사람은 없느냐는 질문을 하더라"라며 당내 분위기를 귀띔했다. 민주당 경선이 한창인데도 이런 여론이 대두되는 데는 현재 후보들이 저마다 약점이 있어서다.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선거자금에 부족해 예비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를 두고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로 올라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전국구 선거에서도 통할지 의문이다. /연합뉴스

## 군국주의 부활 꿈꾸는 日 보수세력 메이지 유신 '메이지의 날' 복원 추진

일본에서 11월 3일은 '문화(文化)의 날'로 공휴일이다. 이날은 제122대 메이지(明治) 일왕의 생일로, 1947년까지는 '메이지절(明治節)'로 불리는 국경일이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패전한 뒤 일본을 잠정 통치한 연합군총사령부(GHQ)가 일왕을 신(神)으로 여기는 종교인 '국가 신도(神道)'의 색채가 강하다는 이유로 '메이지절'의 개폐를 요구해 1948년부터 '문화의 날'로 변경돼 명맥을 유지했다. 1867년부터 1912년까지 재위한 메이지 일왕은 264년간의 에도 막부 체제를 끝내

고 실권 없는 존재로 전락해 있던 일왕(天皇·덴노)의 존재를 국가권력의 중심으로 올려놓은 메이지 유신의 주인공이다. 그의 재위 시기에 일본은 한국을 병탄했다. 2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민간단체 '메이지의 날 추진협의회'는 오는 30일 '메이지의 날' 명칭 복원을 지지하는 100만명의 서명을 집권 자민당 의원들로 구성된 '메이지의 날 실현을 위한 의원연맹'에 전달한다. 추진협의회는 이를 계기로 '문화의 날' 명칭을 '메이지의 날'로 바꾸기 위한 국경일법 개정예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권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